

광주 중견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 사실로

사업중인 4개 현장서 중도금 이자 납입 지연 확인 2009년 워크아웃 이후 위기 고조...분양자들 불안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 경제계에서 한국건설 위기설은 줄곧 제기되었는데, 최근 몇몇 사업장에서 중도금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은 20여 곳으로, 분양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 12일 자신들이 추진 중인 광주지역 4개 다세대주택 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납입 불가 상황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했다.

한국건설은 사과문에서 "최근 시공한 사업과 관련해 고객 중도금 대출 이자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객님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4개 주택 분양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부터 이자상환액을 통보 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내지 않았으니 분양자가

직접 이자를 내라는 내용으로 금액까지 적시됐다.

한국건설이 건설 중인 광주시 동구 공동의 한 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지난 11일 갑자기 이자상환액 43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고 한국건설에 연락을 해보니 자신들이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갑작스레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할 뿐더러, 집이 제대로 지어질 지도 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실행한 물건(아파트) 공정률이 예정보다 낮은 데다, 공정을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분양자들에게 이자 납입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분양받은 주택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한국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분양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지만, 분양자 입

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4개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보증보험공사(HUG)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분양 보증이 없는 한국건설 사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3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여럿 분양했기 때문이다. 분양자들은 이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 전부를 잃는 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한국건설의 경영 악화설은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오르내렸다.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등으로 건설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한국건설은 특히나 건설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다.

당장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한 아파트 현장은 공

사가 중단 된 지 2달 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는 얘기와 자체 대금 지급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99위를 기록한 한국건설은 지난 2009년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에 돌입한 바 있다. 한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소규모 고급단지와 장기임대 사업에 집중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건설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 PF 사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한국건설이 보증 보험이 없는 현장이 많다는 점으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이동점포 'Wa요버스' 개점

상담창구·자동화기기 등 탑재...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등서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점포 'Wa(와)요버스'를 개점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열린 개점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와요버스'는 캠핑형 차량에 금융단말기를 갖추고 상담창구 2개, 자동화기기(ATM) 등 필요 설비를 탑재해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든 장소 제약 없이 전반적인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이동점포다. 광주은행이 기존에 운영했던 대형 이동점포보다 기동성을 강화해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더 높였다고 광주은행을 설명했다.

'와요버스'는 은행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로,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신권 교환을 하거나, 신규 아파트 대출 현장과 지역축제 등 인파 밀집 지

역 등을 찾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금융취약계층을 찾아가 금융사기 예방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새로운 이동점포 '와요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설 선물은 보해 술로...출고가 인하

22일부터 복분자·매취순 등

보해양조는 22일부터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의 출고를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해양조가 과실주 출고가 인하를 결정한 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약주는 20.4%,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기준 판매비율을 정했다. 이 수치가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효과를 낸다.

과실주의 기준판매비율은 다음달부터 도입 예정이나, 보해는 기준판매비율로 인한 출고가 하락 금액 만큼을 미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5.3%(343.51원)이 낮아지며, '매취순 오리지날'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 낮아진다. '15년 숙성 매취순'과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인하된다. 이와 같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라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최경희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성료

1635회 금요 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제자총협회(회장 양진석·부회장 최경희)는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를 초청해 1635회 금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최 교수는 '아세안 재발견 떠오르는 개인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교수는 "최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거점 생산지역 및 물류 허브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신시장 진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를 세밀하게 분석하

고, 투자해서 광주경총 회원기업이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바란다"면서 인도네시아 투자와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 광주경총 회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을 초청해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1636회 8강연을 진행한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매주 금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한국기록정보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위니아, M&A 매각 공식 절차 돌입...4월 투자계약 목표

내달 16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회생절차 조기 종료에 총력”

위니아는 14일 인수합병(M&A) 진행을 위한 매각 절차에 들어가 첫 공식 절차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위니아와 매각 주권사 삼일회계법인인 오는 4월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3월 입찰 참여한 곳에 대한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안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매각 대상, 즉 위니아에 대한 가

치를 평가하고,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 M&A 진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절차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매각 추진 방식은 회생계획 인가 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형태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달 16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약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니아는 회생절차 기간을 빠르게 종료하기 위해

업체 신제품 생산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신속한 M&A 진행으로 임직원 고용 안정과 영업활동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김혁표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M&A 매각의 첫 공식 절차는 기업회생절차 종료로 앞당길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깊다"며 "M&A 매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 업체의 브랜드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 강소기업 모집

내달 15일까지 접수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도내 수출(예정 포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전남 TP는 14일 "오는 2월 15일까지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옛 글로벌IP스타기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년간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향상 등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4년 수출 예정에 있는 전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 권리화(출원·OA·등록) 비용 지원, 특허 컨설팅(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 웹), 디자인 컨설팅(디자인맵, 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화상, 목업), 브랜드 컨설팅(브랜드 개발-신규, 리뉴얼, 비영리권 브랜드 개발), 융합 컨설팅(기업IP경영진단구축, IP 컨버전스(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등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7000만원 이내

에 3년간 최대 2억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지원 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오익현 전남 TP 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직장 내 역량·경험 평가 성별격차” 78.3%

광주여성가족재단 보고서 발간

‘전문성 요구 업종’ 격차 더 커

‘성별따라 업무 나뉘어’ 52.9%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지난 10일 '광주지역 기업 성별격차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성별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을 꼽았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과 채용, 승진 등에서 성별 격차

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모니터링은 광주지역에서 종사자 비율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종인 보건업, 제조업, 건설업 등 분야에서 남녀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용부터 교육, 승진, 워라밸까지 전 단계의 성별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근로 공시를 위한 지표까지 제시했다.

채용 단계에서 '현 직장이 성별 관계없이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을 평가했다'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차별적 질문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 직장이 성별에 따라 업무가 나뉘

다'는 질문에 52.9% '그렇다'고 답했으며, '배치된 업무 중요도와 난도에 성 차이가 있다'에 29.7%가 동의하는 등의 결과가 나왔다.

'현 직장 여성 퇴사자 중 결혼, 임신, 출산을 계기로 퇴사한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도 3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고용 형태, 퇴직금 정산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밝혀졌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모니터링이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 '공공부문 남녀 임금격차 공시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여성 고용과 관련해 정책개발 및 조사 등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로또복권 (제110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4	22	26	37	38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383,591,413				2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73,205,895				63	
3	5개 숫자 일치	1,516,099				3,042	
4	4개 숫자 일치	50,000				147,705	
5	3개 숫자 일치	5,000				2,461,606	